

광주도 ‘대선 투표’ 오픈런… 시민의 바람 “통합·국민정치”

“어지러운 나라 바로세우고 서민들 잘 사는 나라 만들어야죠.”
“새벽부터 투표하러 나온 국민들처럼 부지런한 일꾼 뽑아야제.”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광주 지역 각 투표소에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일꾼을 뽑으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 북구 우산동 행정복지센터(우산동 제1투표소) 입구 앞에는 투표 개시 30분 전부터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운동복 차림의 70대 여성은 제자리에서 걸음을 뛰면서 “아따! 시간이 정하게 안 가네~!”라고 말했다. 얼굴 표정과 말투에서는 기다림의 지루함보다 새 대통령 선출에 대한 설렘이 묻어났다.

투표 10분 전부터는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하나 둘 찾아오는 시민들의 발길이 잇따랐다. 아침 운동을 하다 투표소를 들린 주민부터 사회인 동호회원들과 함께 찾은 단체 유권자, 가족 등 금세 시민 20여 명이 투표소를 찾았다.

오전 5시20분부터 투표소 앞에서 기다렸다는 신모(72·여)씨는 “한 표라도 얼른 찍어주고 싶어 일찍 나왔다. 나보다 더 일찍 나온 어르신이 있더라”며 “빨간색, 파란색 구분 없이 서로 화합해 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정책을 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 직장인은 사회인 농구 대회 개최지인 인천으로 떠나기 직전 동호회원들과 투표소를 찾았다.

직장인 김모(28)씨는 “비상 계엄과 탄핵 정국을 겪으면서 국민으로서 좋은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투표를 하러 왔다”며 “각 정당의 득세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모(73)씨는 “이 좁은 대한민국에서 왜 서로 적을 두고 사느냐. 분열되고 갈라진 나라를 통합할 수 있는 대통령이 선출되길 바란다”며 “일자리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지방의 젊은 청년들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고 소망했다.

서구 금호중학교(금호1동 제2투표소)에도 주권자의 당당한 권리를 행사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일찌감치 투표를 마치고 산에 오르려는 등산객,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노동자 등 다양한 시민들이 줄인 눈을 비비며 투표소로 모여들었다.

투표소에서 가장 먼저 투표를 마치고 나온 임모(76·여)씨는 “투표하러 부지런히 나온 국민만큼 부지런한 대통령이 됐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오전 광주 서구 금호중학교에 마련된 금호1동 제2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 개시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시

투표소마다 개시 전부터 남녀노소 유권자 잇단 발길

“국민 통합” “정년 연장” “서민 잘 사는 나라” 염원도

으면 좋겠다”며 웃어 보였다.

임씨는 “한 여름이지만 지금도 지난해 겨울처럼 춥다고 느끼는 이유가 있다. 이 심전심이다. 서민들의 삶에 보탬이 되고 혼란한 정국을 안정시키며 성장하는 나라를 만드는 데 부지런한 대통령이면 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22년째 근무 중인 김모(53)씨는 “눈에 띄는 공약 중 하나는 2년 유예를 거쳐 제조업 종사 노동자의 현행 만 60세 정년을 1년씩 늘린다는 내용이 있다”며 “내세운 공약을 반드시 지키는 대통령, 나아가 서민·중산층이 후대에 빈곤의 악순환을 물려주지 않는 사회를 약속한 후보가 차기 대통령감”이라고 강조했다.

밤새 식재료를 다듬다 퇴근길에 투표한 자영업자 최모(42)씨는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한 표 행사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장사를 하며 알고 지낸 여러 사장들도 아예 접거나 또는 서울로 향하고 있다”며 “지역에서는 살아갈 기반이 잘 보이지 않는다. 부디 지역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능력 있는 후보가 당선되길 바란다”고 했다.

남구 양림동행정복지센터(양림동 제1투표소)에도 투표소 문이 열리길 기다리는 시민들을 만날 수 있었다.

어스름한 새벽, 가장 먼저 투표소를 찾은 주민 장모(51·여)씨는 어떤 후보를 뽑을지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장씨는 “아직도 누구 뽑을지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 정쟁하지 않고 국민만 바라볼 인물이 뽑혔으면 한다”고 밝혔다.

줄린 눈을 비비며 찾아온 취업 준비생, 지팡이 짚은 어르신, 나들이 전 투표소에 들른 일가족 등 유권자들은 저마다 건네 받은 기표 용지에 조심스럽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지팡이를 짚은 백발의 노인은 가족들의 부축을 받으며 기표함에 용지를 넣은 뒤 시원하다는 듯 환한 웃음을 지었다.

밤샘 일을 마치고 투표한 자영업자 이모(55)씨는 “덜 나쁜 사람 뽑아야제. 얼마나 국민들이 고생했소”라면서 너털 웃음을 지었다. 계엄 정국으로 침체된 경제를 잘 살리는 후보가 당선됐으면 한다는 소망도 전했다.

공무원시험 수험생인 안모(27·여)씨는 “참신하고 서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당을

뽑겠다”고 말했다.

일부 유권자는 거주지 투표소를 헛갈려 발길을 되돌리기도 했다.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스포츠센터(용봉동 제4투표소)는 대학가와 인접한 투표소 만큼 청년 유권자들이 유독 눈에 띄었다. 청년들은 가방을 멘 채 서 있거나 필기가 적힌 노트를 들여다 보며 각자 투표 차례가 오길 기다렸다.

투표를 마친 청년들은 청년 정책, 취업, 지역 인구 유출 문제 등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냈다.

최모(26)씨는 “모든 청년의 바람은 같을 것 같다. 취업이 잘 돼 모두 잘 사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모(22·여)씨는 “모두가 알다시피 요즘 많은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고 있다. 농촌은 더 심각하다”며 “다양하고도 좋은 정책을 펼쳐 ‘청년이 지방을 떠나지 않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모두가 잘 사는 나라’에 대한 염원은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한 마음 한 뜻이었다. 한모(75·여)씨는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잘 먹고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을 위해 모든 걸 쏟을 수 있는 대통령이 당선돼야 한다”고 했다.

이번 대선 본 투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광주·전남 투표소 1163곳에서 진행됐다.

/이정형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오전 국도 최서남단인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주민들도 투표소를 찾아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흑산면가거도관리사무소 제공

가거도 등 신안 섬 주민들도 ‘소중한 한표’

작은 섬 주민들 배타고 투표소 이동

선관위, 선박·차량 등 교통편의 제공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국도 최서남단인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등 7개 섬 주민들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일부 투표소가 없는 신안의 작은 섬 주민들은 선박을 이용해 투표소가 설치된 큰 섬으로 이동해 투표에 참여했다.

신안군에 따르면 이번 대통령 선거의 선거인수는 3만5832명으로 지난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3만5288명에 비해 544명(1.54%)이 증가했다. 이들 중 지난달 29~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유권자의 절반이 넘는 2만3508명(65.61%)이 참여했다. 이는 전남의 평균 투표율(56.50%)을 웃도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150여명은 거소투표를 신청했다.

신안군의 투표소는 섬이 많은 흑산도가 9곳으로 가장 많고 압해읍 6곳, 지도읍 5개소 등 14개 읍면에 모두 50개소가 설치됐다.

투표소는 인구가 많은 큰 섬에 설치됐다. 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은 흑산면 장도 주민들은 본섬, 흑산면 상대·중태도 주민들은 하태도로 이동해 투표에 참여했다.

/뉴스시

하의면에서는 문병도와 장병도, 신도 등 7개 섬 주민들이 선박을 이용해 본섬의 대리(2투표소)로 이동해 한 표를 행사하는 불편함을 감수했다.

목포에서 쾌속선으로 4시간 거리의 국도 최서남 가거도에서도 이른 아침부터 주민들이 투표소를 찾았다.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은 가거도에서는 유권자 338명 중 114명이 관외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선관위는 작은 섬 주민들의 투표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선박과 차량 등 교통편의를 제공했다. 또 흑산도와 만재도 등 신안군의 먼 섬 투표함은 쾌속선 2대를 임차해 수송에 나설 계획이다. 쾌속선은 흑산도와 만재도에 대기하다 투표함이 도착하는 대로 개표소가 설치된 목포로 이동할 예정이다.

염창석 신안군 가거도관리사무소장은 “가거도는 1년에 절반 이상이 날씨가 여건 등으로 여객선이 운행하지 않는 곳”이라며 “오늘은 예상과 달리 여객선이 운행하고 있어 흑산나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주민들이 들어오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새 정부 인수인계 준비 마쳐

대통령실은 6·3 대선 당일인 3일 인수인계 준비를 마치고 새정부 출범의 시간을 차분하게 기다리는 모습이다.

새 정부에 대한 인수인계 작업은 당선인이 확정되고 4일 오전께 윤재순 총무비서관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각 비서관실에서 제출받은 인수인계서도 이때 전달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별정직 공무원들은 지난 2일자로 면직 처리된 상태며, 정부부처에서 파견됐던 공무원들도 대부분 복귀했다.

인수인계를 위해 남은 정전식 비서실장과 신원식 안보실장 등 참모들도 4일자로 면직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사저가 있는 아크로비스타 인근의 한 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투표했다.

김 여사가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4월11일 한남동 관저 퇴거 때 사저가 있는 아크로비스타 입구에서 주민들과 인사한 이후 53일 만이다. /뉴스시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525-9775 FAX (062) 528-4566

